

문학으로 광주정신 잇고 시로 호남정서 담아

광주 최초 시 전문지 계간 '시와 사람' 20주년

시인 50여명 배출 ... 남도 시단에 새로운 활력

16일 전국 문인들 참석 기념식

광주 최초의 시전문지 계간 '시와 사람' (발행인 강경호)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문학, 미술, 공연 등 문화까지 중앙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토대로 한 시전문지의 창간 20돌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다.

당시 문인들은 문학적으로 광주정신을 잇고 호남정서를 담아내는 그릇을 지향하기 위해 시전문지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 편집주간에 고재중 시인, 편집위원에 객재구·신덕룡·이지엽 시인이 참여했다. 문병란·장효문·김준태·김희수 시인은 편집자문을 맡아 5·18민중항쟁 16주기인 1996년 5월 18일 마침내 '시와 사람' 복호가 세상에 나오게 된다.

창간을 주도했던 강경호 발행인 겸 시인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지 십수 년이 지났어도 광주의 정서는 여전히 울분과 분노, 그리고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향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광주'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 나는 '모든 예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전문지를 창간할 때 이름을 '시와 사람'이라고 지었다."

'시와 사람'의 20년 발자취는 시의 불모

지가 돼버린 호남에 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시문학을 견인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50여 명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인을 배출해 우리 시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호가 말해주듯 '시와 사람'은 시를 통해 인간을 살피겠다는 모토를 지향했다. 초창기에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특집을 실어 자본명명에 위협받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성을 탐구했다. 더불어 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긴 김현승·박용철·김영랑 등 호남출신 시인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조명했다.

또한 '생태현장기행'에서는 생태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송수권 시인의 '남도정서·남도정신'은 호남의 자연과 풍류·풍수·음식을 매개로 호남정신의 원류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뒀다.

호남정신과 호남시문학의 물줄기를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조명한 시리즈도 기획했다. '무등산의 심상과 역사적 상상력', '남도의 길과 강', '문화중심도시의 문학',



2006년 6월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와 사람'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문학강연 및 시낭송회 모습.

'호남 설화와 시적 지평과 모색', '현대시와 광주' 등이 대표적인 연재물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이 만나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사례를 토대로, 장르 간 소통과 해석의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본 시도도 있었다. '문학과 미술의 만남' 기획은 문학과 미술을 비교예술적 차원에서 접근, 문화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학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여름문학학교' '문학강연' '시낭송회' '육필원고전' 등을 열어 시인과 독자들의 만남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와 사람'은 문화관광부 '우수문예지'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됐다.

공동주관을 맡고 있는 정윤천 시인은 "과거에 비해 문학 장르가 위축된 것은 맞지만 지역에서 시전문지를 20년간 꾸려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과거에 비해 문학이 많이 위축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시간을 발판삼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오후 4시) 동구 KT타워(동구청 뒤)에서 2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은 전국의 문인, 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진규 시인의 문학강연, 김준태·허형만 시인의 격려사, '품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010-3454-2945.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족이 들려주는 '여름의 선물'

김재준·이유정·김재은 트리오

1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가족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화음.' 첼리스트 김재준씨와 피아니스트 이유정씨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세 사람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트리오 공연이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들은 몇차례 트리오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 왔다.

'여름의 선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슈만의 '아다지오

와 알레그로 작품번호 70', 멘델스존의 '피아노트리오 1번 d단조 작품번호 49', 바흐-부조니의 '사콘느 d단조' 등이다.

이씨는 연세대를 거쳐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서울신포니에타 피아니스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재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거쳐 더 콜러트 앙상블 등에서 활동중이며 전남대, 독일 카셀 음대 등에서 수학한 재은씨는 랑 현악 4중주단 등 다양한 실내악 그룹에서 연주하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2-511-1920.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카슈닌 독주회

15일 문화전당 극장 3

무료 ... 공개 마스터 클래스도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카슈닌(사진) 독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7번 템페스트', 쇼팽의 '발라드 4번',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작품 120 A장조',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등이다.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수학한 키릴 카슈닌은 라흐마니노프 클래식 헤리티지 부문 1등상, 타니예브 국제 실내악 대회 3등상 등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했으며 모스크바 음악원 차이코프스키-라



흐마니노프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무료 공연으로 티켓은 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키릴 카슈닌은 공연 전날인 14일 오후 7시 같은 장소

에서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한다. 클래스현장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용아로 꽃피우는 인문학 콘서트 숨결

13일 광산구 용아 쟁가

'용아로 꽃피우는 인문학 콘서트 숨결'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산구 용아 쟁가 맞은편 행랑채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의 공연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리풍수 전문가 김이중씨

가 '지리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용아 박용철 시인의 작품을 참석자들과 함께 낭송하고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다.

별도의 절차 없이 당일 용아 쟁가에 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62-960-7920.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진기행' 김승옥 첫 그림 전

유명 인사·팬들 몰려 큰 성황

21일까지 서울 혜화아트센터

한국 현대소설의 걸작으로 꼽히는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75)이 첫 그림 전시회를 열고 팬들을 만났다.

8일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 '김승옥 무진기행 그림전' (21일까지)에는 그의 소설을 사랑하는 유명 인사들과 오랜 팬들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성우 배현성 씨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 행사에는 이영려 전 문화부장관과 피아니스트 백건우·배우 윤정희 부부 등이 참석했다.

이영려 전 장관은 "1977년 이상문학상을 제정하고 이상을 담은 가장 창의적인 사람을 찾으니 김승옥밖에 없었다. 제1회 상을 주려고 김승옥에게 소설을 쓰게 했는데, 앞부분밖에 못 쓰고 완성을 못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제목에 '0장'이라고 붙여서 '서울의 달빛 0장'이 됐고 그걸로 상을 줬다"고 옛일을 들려줬다.

10여년 만에 작가를 만난 백건우·윤정희 부부는 보자마자 그를 일싸안고 반가워했다. 윤정희는 '무진기행'이



8일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 '김승옥 무진기행 그림전'에서 김승옥 작가가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원작인 영화 '안개'(1967) 여주인공을 맡았던 인연으로 작가와 친분을 쌓았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은 언어능력을 거의 잃은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없음을 아쉬워했다.

김승옥 작가는 글은 안 쓰냐는 물음에는 머리 모양과 그 안에 뇌를 그린 뒤 '50%'라고 적었다. 뇌졸중으로 두뇌

절반이 손상된 뒤 글을 쓸 만큼 회복되지 않았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말을 건넸더니 빙글 웃으며 "혹시"라고 말한 뒤 종이에 '2020'이라고 쓰고 동그아미를 쳤다. / 연합뉴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